

적극적인 研究開發로 技術축적해야

— 합리적인 衣生活 유도할터

『사람은 다른 動物과는 달리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몸의 保溫은 물론 모양도 내고 위엄을 갖추게 된 것이 약 5천년전부터입니다. 인간생활의 造形중에서도 衣類는 인류특유문명의 소산으로서 의생활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도 다양 복잡하고 또한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요』

韓國衣類學會 趙升植회장(숙명여대 가정대의류학과 교수)는 의생활의 향상이 바로 인류복지 향상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의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강조한다.

趙회장은 『의복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반해 이 방면의 연구가 너무 소홀했던게 사실』이라면서 합리적인 의생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옷이란 체형에 적합하고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아름다운 외관을 간직할 수 있는 의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옷의 쾌적함이나 실용성보다는 지나치게 사치하고 무개성한 옷들이 난무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지요』 趙회장은 그 한 예로 근년들어 부쩍 유행하고 있는 Silk나 마로된 제품들은 세탁뿐만 아니라 취급시의 어려움이 많아 매우 비실용적이고 高價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즐겨입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의생활이 기능쪽은 무시하고 너무 외관에 치우쳐 비합리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일침을 가한다.

이는 소비자측의 문제 뿐만아니라 생산자나 또 의류관계자 모두의 책임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류학의역사와도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말한다.



趙 升 植 회장

우리나라 대학에서 의류학을 독립된 전공학파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남짓으로 그동안 가정학과에서 衣·食·住 전반을 다 취급했으나 가정대학이 설치되면서 식품영양학과, 가정관리학과와 함께 독립된 학과목으로 가르치게 됐다는 것이다.

『섬유공학이 생산공학 쪽이라면 의류학은 소비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비과학이라고 하면 생활향상을 위해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지요』 趙회장은 의류학은 원료·재료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그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 사용하여 폐기·처분 등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컨대 제품에 대한 Claim에 관한 문제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요구, 또한 생산유통판매 대책에 관한 제문제들까지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趙회장은 의복이 옛날에는 영구재였으나 요즘에는 소비재로 변모한 만큼 생산자가 소비자

의 기호를 몰라서는 fashion 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른 소재 개발과 디자인의 다양화는 물론 피복위생학적인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요소도 고려해서 의복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마켓팅까지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계획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진출이 많아졌지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기술개발은 커녕 시설부족으로 인해 質 좋은 제품생산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趙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호사가 바로 섬유제품이라면서 1961년도에 스웨덴에 처녀수출품이 섬유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의류 및 섬유산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현재 섬유산업의 사양화와 결코 무관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침체돼 있는 의류 및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기술축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趙회장은 미국의 Dupont社는 섬유의 3차 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나일론을 발명하는데 카라더스를 비롯한 2백30여명의 연구원들이 10년간 2천7백만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했는데 그 결과 듀폰은 나일론 매장에서 이 투자액의 몇백 배를 독점이윤으로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때 개발된 고분자중합체의 합성기술로 51년에 테크론, 63년에 인조피혁, 66년에 폴리에스테일의 개발로 이어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개발이 바로 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준다는 좋은 예라고 설명한다.

또한 원산지인 中國등을 제치고 실크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태리와 불란서 등도 다 집중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면서 우리도 첨단산업에만 치우친 연구비 투자를 의류 및 섬유산업 쪽으로 돌려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趙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자와 디자이너 양성은 물론 색상개발 등 가공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꼼꼼하므로 의류산업이야말로 우리 국민체질에 맞는 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趙회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의류 및 섬유산업의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의류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근래 우리의 의생활이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각 업체별로 호칭·규격 등이 달라 기성복이 생활화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제조업체별로 난립된 규격을 통일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의류의 표준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의류의 표준화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국가적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 표준체위조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의류생산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趙회장은 이와 함께 의류학의 교과과정의 쇄신 및 개편작업과 더불어 의생활의 보다 향상된 개선방안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태도는 물론 용도에 적합한 의복재료 선택과 현대생활에 알맞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제작 등이 의류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올해가 학회가 설립된지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 4월 12일을 기해 조촐하게 창립기념행사를 갖고 각 섬유별 견본집과 의류용어집을 펴낼 예정입니다』 趙회장은 학회 연륜이 짙아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產學協同을 더욱 강화하여 디자인개발에 대한 자문을 비롯 공작기술지도, 표준화된 규격제정, 품질관리 등에 힘쓰는 한편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생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의류용보다는 탄소섬유, 인공혈관, 광섬유 등 산업용으로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쪽에는 이미 발전할 때로 발전한 상태이므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섬유를 어떻게 改質해서 보다 더 좋은 옷감을 생산해 내느냐가 문제이지요』 趙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선진기술의 도입보다는 자체 기술개발에 힘써 기술축적을 해야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